

2009. 3. 16 제211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디자인

1. '런던 이야기'가 전하는 市 역사 (런던)
2. 교통수단을 이미지화해 기념품으로 제작 (런던)
3.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제행사는 '논스톱'행진 (상하이)
4. 만지면 '도시 정보'가 보인다 (베를린)

산업·경제

5. 근로자 해고하는 기업에 금융지원 중단 (브라질)
6. 실업예비경보 올리면 실업상황에 맞게 정책 마련 (북경市 조양區)

건강·복지

7. 장애인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교육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8. 노인 주거 공동체 설립 공모전 실시 (독일)
9. 市 의료사업 8대 개혁안 (상하이)

행정·재정

10. 3년간 3000여 명 산업연수생 투입 (런던)

목 차

방재·안전

11. 재해 거점 병원 지정해 '지역 방재' 목표 달성 (도쿄)

도시환경

12. 음식 소비 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 (런던)
13. 녹색 인증 장소 모아 '그린(Green) 지도' 제작 (상하이)
14. 빗물 이용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공중 화장실 (파리)
15. 풍력 에너지 활용 가능성에 주목 (브라질)
16.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임 (영국)
17. 유럽의 녹지 수도는 스톡홀름과 함부르크 (유럽)
18. 에너지 절약 제품 구입 촉진 (일본)
19.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기업 지원 (북경)

도시교통

20. 더 넓어진 인도로 자유롭게 다니세요 (뉴욕)

도시계획·주택

21. 운하 주변 수변공간을 도심 쌈지농장으로 활용 (런던)
22. 2012년 올림픽 개최 이후의 '올림픽 파크' 재활용 계획 (런던)
23. 이웃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 정원 (파리)
24. 공영 부동산 사무소 설립 (파리)
25. 도유 시설 10개년 유지 갱신 계획 수립 (도쿄)

1. ‘런던 이야기’가 전하는 市 역사 (런던)

○ 런던市는 市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런던 이야기’(Story of London) 행사를 개최함.

- 2009년 6월 한 달 동안, 헨리 8세의 왕립 500주년 기념행사부터 대중문화 행사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 런던市의 역사를 담은 패션, 예술, 음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
- ‘런던 이야기’는 영화제작사, 작가, 예술가, 관광객 등에게 영감과 활력을 주는 도시의 이야기를 담아 보여줄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118)

>>> 전문가 검토의견

- 현대의 여가·관광 패턴은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단순한 유적지나 명승지를 관람하기보다 골목길을 직접 걸으며 그에 얽힌, 소소하지만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에 더 만족함.
 - 우리나라도 최근 관광개발 과정에서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런던市가 2009년 새로 선보이는 ‘런던 이야기’행사는 바로 이러한 맥락을 잘 읽어낸 것임.
 - 런던 구석구석에 숨겨진 역사와 이야기를 꺼내고, 이를 통해 런던 시민과 관광객에게 런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런던시내 120개 이상의 산책로를 안내자와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6월 내내 이색적이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임.
- 서울시 역시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함.
- 인쇄매체나 영화 등 기존 매체에 머물지 말고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창의적인 전달방법을 찾아야 함.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2. 교통수단을 이미지화해 기념품으로 제작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교통카드 손지갑과 티셔츠, 컵 등에 지하철과 관련된 내용으로 디자인해 특별 제작한 기념품을 교통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함.
 - 기념품을 제작한 디자이너는 2009년 런던패션주간에 출품한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디자인 작품을 상용화한 적이 있는 유명 디자이너임.
 - 런던교통공사는 버스나 지하철 로고가 들어간 상품을 런던을 대표하는 문화 상품으로 다양하게 개발해 수익사업화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 런던패션주간 홈페이지 배너도 링크해 문화행사 홍보 효과도 기대됨.



(shop.tfl.gov.uk/Daisy-de-Villeneuve.html)

3.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제행사는 ‘논스톱’행진 (상하이)

- 상하이市는 최근 국제박람회와 무역 행사가 한창임. 금융위기로 무역 규모가 축소되거나 행사 자체가 취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규모가 더 확대됨.
 - 2009년 3월 1~5일 개최한 ‘중국 화동 수출입 상품교역회’의 전시면적은 이 전보다 확장됐고, 참가업체 수도 예년과 비슷한 3500개 업체임.
 - 국제 와인 박람회가 3월 12~14일 개최됨.
 - 이번 박람회는 중국 와인업계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행사로, 중국 내외 업계의 기대를 모음.
 - 중국 면직물 교역회가 3월 22~24일 개최됨.
 - 이번 교역회에는 업계 핵심 기업을 포함한 약 30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임.
- (finance.sina.com.cn/roll/20090224/23042692478.shtml)

4. 만지면 ‘도시 정보’가 보인다 (베를린)

- 베를린市는 시청 방문객에게 베를린을 알리고 새로운 체험 기회를 주고자 ‘미디어 테이블’을 마련함.
 - 미디어 테이블에서는 게임을 하듯 관광정보를 얻고 역사를 배우며, 베를린 수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음.
 - 테이블 표면은 만지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만지는 곳마다 프로젝터에서 빛이 투사돼 관련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정보가 나타남.
 - 음향시스템이 있어 베를린을 멀티미디어적으로 체험할 수 있음.
-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0126.html)

5. 근로자 해고하는 기업에 금융지원 중단 (브라질)

○ 브라질 정부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함.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는 대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취소하는 것 등을 검토 중임.

-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온 업체들이 최근 경제위기를 이유로 인력감축을 하고 있음.

· GM 브라질 법인이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744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인력감축 움직임이 나오는 데 따른 것임.

-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IBGE)에 따르면, 2008년 11월 제조업 부문 신규 고용이 10월보다 0.6% 줄어들면서 2003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의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고용 환경이 크게 악화됨.

-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고용 문제가 브라질 경제성장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업보험 지급 확대 등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함.

· 브라질 정부는 3월 안에 내수시장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고용창출을 주요 목표로 하는 추가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임.

· 정부와 재계, 노동계가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 고용확대기금과 근속연수 보상기금, 실업보험 등 현재 운영 중인 노동 관련 기금의 사용 실태를 감시하기로 함.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114/not_imp306793,0.php)

6. 실업예비경보 올리면 실업 상황에 맞게 정책 마련 (북경市 조양區)

○ 북경市 조양區는 실업예비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등급마다의 실업 상황에 대비할 계획임. 기업의 일자리 안정화, 재교육 기회 제공, 빈곤층 보조, 공공산업 근로 등 각종 긴급정책을 취할 예정임.

- 2009년 조양區 실업자 등록 인구가 모두 5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이는 2008년에 비해 15% 증가한 것임.
 - 이 중 새로 추가된 빈곤층이 1만 8000명으로, 2008년보다 11% 늘어남.
- 실업예비경보 시스템을 옐로우 라인과 레드 라인으로 나누고, 실업률이 상승해 경계선 가까이 오면 공익 근로 일자리를 늘리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탄력적인 취업 정책을 펼 예정임.
- 조양區는 취업 촉진 자금을 만들어 다양한 경로로 취업을 확대하고 공공근로나 임시직 근로 자리도 늘리며, 사회보험 수령 인구도 확대할 것임. 또한 기업에 실업자를 고용하도록 격려할 계획임.
- 안정적 취업 국면을 위해 조양區는 자금을 투입하고, 사정이 곤란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대학교 졸업생의 일자리 마련 및 근로자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北京日報, 2009. 2. 16)

건강 · 복지

7. 장애인과 가족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교육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리우데자네이루市 장애인 담당국은 장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교육함. 이를 통해 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성을 향상하고자 함.
 - 정신장애로 병어리까지 된 자매를 둔 한 장애인 가족은 그들만의 언어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현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함.
 - 리우데자네이루市는 4개 지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계소득이 최저 임금 수준에 못 미치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함.

(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12375)

8. 노인 주거 공동체 설립 공모전 실시 (독일)

- 독일 정부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 공동체 의식 강화,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노인 주거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 중임. 이 프로그램의 하나로 노인 주거 공동체 설립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함.
 - 이 공모전의 취지는 젊은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공동체를 이뤄 살고, 노인의 자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주거방식을 개발하는 것임.
 - 주거 공동체를 설립하고 거기에서 자신도 살고자 건물을 구입하거나 개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음.
 - 선발 기준은 시설 위치, 노인 및 장애인 친화성, 지역 조직과의 협력 등임.
 - 독일 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100개까지의 주거 공동체를 지원하고, 최고의 수상자에게는 2억 원까지 저렴하게 용자를 지원할 예정임.
- (www.bmfsfj.de/bmfsfj/generator/BMFSFJ/aeltere-menschen,did=119922.html)

9. 市 의료사업 8대 개혁안 (상하이)

- 상하이市 위생부는 2009년 2월 의료위생 개혁 계획 회의를 열고, 2009년 의료사업 8대 개혁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의료기관 개혁 등 체제 개편
 - 보건소 110개소 건립과 앰블런스 500대 확충 등 의료 기본보장 체제 확립
 - 市 외곽 농촌지역 의료센터 48개소, 보건소 426개소 설립 등 농촌 지역 의료체제 개선
 - 시내 5개, 시외 3개 종합병원 설립 계획인 '5+3 계획'
 - 중의학 연구개발 지원 사업
 - 의료 인력 배양을 위한 교육기관 전문화
 - 체계적인 의료 행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 세계 의료보건 정신에 부합하는 의학정신 배양
-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2/19/content_15732500.htm)

10. 3년간 3000여 명 산업연수생 투입 (런던)

- 런던시는 영국 전역에 걸친 산업연수생 주간을 맞아 향후 3년 동안 3000명 이상 규모로 취업연수생(청년인턴) 제도를 운영함. 경기침체로 위축된 구인·구직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임.
- 2008년 12월 수립된 경제회복 계획에 따라 런던시와 산하기관은 2012년까지 연수생 1000명 이상을 고용하기로 함.
 - 런던교통공사와 회사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성인 650명과 청년 115명을 연수생으로 고용하며, 런던경찰청은 150명을 고용함.
 - 런던시청은 2009년 기업 경영 분야 인턴 15명을 추가 모집함.
- 런던시는 시청 및 산하조직뿐 아니라 시 업무와 연계된 사기업 및 민간조직에 연수생 제도 도입을 적극 홍보함.
 - 외주기관과 행정서비스 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직업 훈련·재취업 기회 제공을 계약 조건에 추가하도록 독려할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077)

한 줄 뉴스

● 로스앤젤레스

-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 소유 주차장과 미터기를 민간기업에 임대할 계획
- 가로등 14만 개를 절전형 LED 전구로 교체해, 연간 6700여 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 기대

● 상하이

- 200여개 나라가 참관해 2010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열릴 '세계무역박람회' 준비 시작

11. 재해 거점 병원 지정해 '지역 방재' 목표 달성 (도쿄)

- 도쿄都是 1986년부터 재해가 발생하면 의료구호 활동의 거점이 되는 의료기관을 '재해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정비해 왔음.
- 재해 거점 병원이란 재해가 발생해 의료진 확보가 곤란한 곳에 의료구호반을 파견하는 등 의료구호 활동의 거점이 되는 의료기관임.
 - 재해 현장에 의료구호소를 설치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임.
 - 지정 요건으로는 재해 종합지역 위험도가 낮은 곳에 있고, 200상 이상의 병상이 있어야 하며, 많은 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강당이 있어야 함.
- 재해가 발생하면 도쿄 도지사의 요청에 근거에 환자를 받아들이고 의료구호반을 파견함.
 - 평상시에도 비상 체제 및 방재 훈련 실시하고 비축 자재 등을 점검함.
- 도쿄都是 2007년 개정된 '도쿄都 지역 방재 계획'에 근거해 도내 재해 거점 병원을 70개 확보하기로 하고, 2009년 3개 병원을 추가 지정함.

(www.metro.tokyo.jp/INET/SHIRASE/2009/02/20j2r100.htm)

한 줄 뉴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24시간 운영되는 '건강전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병에 대해 문의 가능
- 런던
 -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심 외곽지역의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에 적극 투자할 계획

12. 음식 소비 잘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 (런던)

○ 음식 소비 탄소발자국 연구 결과, 런던 시민은 1년에 80억 끼니의 음식을 소비하면서 온실가스를 약 1900만 톤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컨설팅 회사 Brook Lyndhurst社는 식품 소비와 기후 변화의 관계를 분석·연구함.

·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메탄가스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모든 배출가스를 총망라해 음식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함.

-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런던 외곽지역에서 음식과 식재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이 78%를 차지함. 나머지 22%는 런던 시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과정은 음식 준비와 저장 과정임.

· 음식물 소비가 많은 기관은 학교와 병원임.(연간 1억인 분 소비)

- 연구결과에 따르면, 런던 시민이 구매한 음식류의 1/3을 쓰레기로 배출하고 있음.

· 좀더 계획적인 소비 습관과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식품 소비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057)

(www.london.gov.uk/mayor/publications/2009/02/food-emissions.jsp)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뢰한‘음식 소비 탄소발자국’연구는,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조사해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의 충실도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음식 소비 탄소발자국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식품 생산·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큼.
- 서울시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무엇보다 시민이 쉽게 체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배출량 정보체계 확립이 필요한 실정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런던市 사례와 같이 시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발자국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시민참여형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자원순환 녹색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3. 녹색 인증 장소 모아‘그린(Green) 지도’제작 (상하이)

- 상하이市 환경보호국은 2010년 세계박람회를 맞이해 시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그린(Green) 지도’를 제작함.
- 그린 지도에는 상하이 환경기초설비, 녹지, 자연보호지역, 녹색호텔, 녹색학교, 생태지역 등 환경보호 지역 및 환경 요소를 담음.
- 현재 친환경 녹색 인증을 받은 녹색학교 670여 곳을 친환경 학교로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자연교육을 적극 실시함.
 - 녹색 인증을 받은 녹색호텔과 녹색식당도 지도에 표시함. 녹색호텔은 에너지 고효율 시스템을 갖추고 절약형 조명기구를 사용하며 객실마다 비치해 왔던 일회용품도 제공되지 않음.

>>> 전문가 검토의견

- 상하이市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그린(Green) 지도’제작은 시민의 친환경 교육과 실천을 유도하는 효과뿐 아니라, 녹색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세계박람회 개최에 즈음하여 녹색 인증을 받은 호텔과 식당 등을 그린 지도에 표시할 경우 녹색도시로서의 위상을 홍보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서울시는 이미 상하이市의 그린지도에 버금가는 환경·생태·기후지도 등을 제작함. 이를 시민환경 교육과 대외홍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2009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C40 총회’와 ‘기후박람회’ 기간에 서울의 환경·생태·기후지도 자료를 공유해,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4. 빗물 이용하고 에너지 절약하는 공중 화장실 (파리)

- 파리市는 2007년부터 무료로 운영 중인 400여 개의 공중 화장실을 2009년 3월부터 새 모델로 교체하고 있음.
 - 이번에 바뀐 공중 화장실은 나무줄기를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장애인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사용 후 청소부터 건조까지 자동으로 진행됨.
 - 다국어 안내 표지판과 사용자 안내판을 새로 설치함.
 - 빗물과 청소한 물을 재활용하는 에너지 절약 화장실임. 이전과 비교해 약 30%의 물 절약 효과가 있음.
 - 천창을 이용한 자연광, 소비전력이 낮은 전력 시스템, 자동 감지 시스템을 이용해 전력 소비도 최소화함.
 - 콘크리트와 철, 알루미늄 등의 건축 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후된 후에도 자재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www.paris.fr/portail/deplacements/Portal.lut?page_id=2&document_type_id=2&document_id=65214&portlet_id=21994)

15. 풍력 에너지 활용 가능성에 주목 (브라질)

- 브라질 정부는 풍력 에너지를 에너지 정책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임.
 - 브라질 국립대기연구소(INPE) 산하 기관인 기상연구예보센터(CPTEC)에 따르면, 브라질 내 7만 1000km² 이상에서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풍속이 있음.
 - 이 풍력에너지를 모두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면 연간 272TWh가 발생함.
 - 브라질이 연간 424TWh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2006년 기준) 60% 이상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수준임.
 - 하지만 현재 풍력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은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1%에 불과함.
 - 이는 지상 50m에 위치한 풍속계를 사용해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더 높은 위치에서 측정하면 더 많은 풍력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음.
 - 브라질은 대부분 수력발전소를 활용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지만, 점차 에너지 수요량이 늘면서 천연가스를 사용한 화력발전소가 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풍력에너지 활용 가능성이 주목됨.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101/not_imp301152,0.php)

16.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임 (영국)

- 최근 런던시의 '런던 재활용 캠페인'(Recycle for London Campaign)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시민이 쓰레기 재활용 생활 패턴을 바꾸도록 함.
 - 재활용 메시지를 휴대폰 게임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함.
 - 게임의 내용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그린 박스에 저장해 '사악한 쓰레기 통'(evil bin)이 비어 있게 하는 것임.
 - 런던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재활용 관련 산업은 곧 회복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쓰레기의 60%는 재활용이 가능하나 현재 런던시민은 20% 밖에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재활용에 대한 생활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휴대폰 게임이 생활 패턴 변화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877)

17. 유럽의 녹지 수도는 스톡홀름과 함부르크 (유럽)

○ 2008년 가을, 유럽연합 도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도시 공모전 ‘유럽 그린 캐피탈’(European Green Capital)의 최종 수상자는 스톡홀름市와 함부르크市임.

- 우선 스톡홀름市이 2010년 유럽 최초의 녹지수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며, 함부르크市가 이어 2011년에 ‘녹지수도’로 불리게 됨.
- 스톡홀름市는 스웨덴 정부가 2050년까지 어떤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고 도시의 하천을 유럽연합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2015년까지 개선한다며 야심차게 제시한 목표로 선정됐음.
 - 스톡홀름市는 오래전부터 이 목표를 추진해왔고 이미 모든 버스와 기차를 재생가능한 연료로 운행하고 있음.
 - 주거지의 95%가 300m 반경 안에 녹지와 휴양지와 연결됨.
- 함부르크市는 산업 대도시로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함.
 - 환경친화적인 산업 성장의 예로 함부르크 도심의 항만 프로젝트, 항공기 산업단지 프로젝트 등을 제시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와 현재의 공공교통시설과 주거지의 녹지관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함.

(www.hamburg-web.de/magazin/artikel/Gruene-Hauptstadt-Europa-Hamburg-101025.htm)

(www.abendblatt.de/daten/2009/02/24/1060926.html)

18. 에너지 절약 제품 구입 촉진 (일본)

- 일본 환경성은 가전제품 제조사, 관련 협회, ‘에너지 절약 가전 보급 및 촉진 포럼’과 연계해 ‘2008년도 에너지 절약 제품 구입 촉진 사업 데이터베이스 검토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절약 제품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제품 구입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2009년 2월 6일부터 시스템 운용을 시작함.
-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5가지 기능(컴퓨터에서의 5개 기능, 휴대폰에서의 3개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제품의 연간 소비 전력량, 전기요금,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 등의 간단 비교
 - 제품 사용시간 및 사용 방법에 따른 연간 소비 전력량, 전기요금 등을 산출해주는 상세 비교
 - 에어컨, 냉장고, 조명 기구, 텔레비전 등을 한 번에 바꿀 경우 연간 소비 전력량 등을 산출해주는 정리 비교
 - 기존에 사용 중인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때 차이나는 전기요금 신속 비교
 - 에너지 절약 신제품의 에너지 절약 성능 표시를 통한 비교 기능
- 기존에 사용 중인 가전제품을 새로 바꾸고 싶어 하는 구입자에게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제품 구입을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shinkyusan.com).

(www.team-6.jp/report/news/2009/02/090226a.html)

한 줄 뉴스

● 베를린

- 창조적 도시 발전을 위해 각계의 학자와 유명인사를 초대해 서로 배우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만남의 베를린' 워크숍 개최

● 도쿄

-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주택 우수 사례 선정

19.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비를 개조하는 기업 지원 (북경)

○ 북경市는 민간기업이 에너지 절감형으로 노후된 설비를 개조할 경우 지원함.

- 2009년 2월, 에너지 관리 및 절감 개조를 위해 20개의 중점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을 확정함.

-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개조작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10~15%의 자금을 받게 됨.

· 2008년에 북경市 정부는 9개 민간기업에 노후된 설비의 개조를 지원함.

- 북경市와 에너지 절감 계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은 한번에 개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개조 이후 몇 년 이내에 그동안 절감된 전기비용으로 나누어 지불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에너지 절감형 개조를 신청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음. 2009년에 이미 60여 개 기업이 신청함.

(newspaper.bjd.com.cn/bjrb/html/2009-02/26/content_121470.htm)

도시 교통

20. 더 넓어진 인도로 자유롭게 다니세요 (뉴욕)

○ 뉴욕市는 'Great White Way' 계획의 일환으로 맨해튼의 중심부인 타임 스퀘어의 일부 차선을 보도로 만들 계획임. 일단 한시적으로 보도를 운영하면서 성공적

으로 정착하면 영구 보도화할 계획임.

- 브로드웨이의 타임 스퀘어와 헤럴드 스퀘어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도보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임.
 - 2009년 5월 중에 브로드웨이의 42번가에서 47번가 구간의 차로가 인도로 변경되며, 이 구간에는 카페 테이블과 벤치 등이 자리 잡아서 시민과 도보 통행자의 편의를 강화할 것임.
- 도보자 중심의 거리 조성이 1차적인 목적이며, 시내 중심부의 막대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진행됨.
 - 2009년 7월 중으로 브로드웨이의 42번가와 35가 사이의 구간 역시 자전거 도로 및 시민 산책로로 개편할 예정임.

(www.nbcnewyork.com/news/local/Walkways-to-Replace-Car-Lanes-in-Times-Square.html)

도시계획주백

21. 운하 주변 수변공간을 도심 쌈지농장으로 활용 (런던)

- 런던시는 런던식품위원회(London Food)와 협력해 추진 중인 도심 쌈지농장을 노후된 운하시설 주변에 대대적으로 조성해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심 농장이자 녹지로 개발할 계획임.
- 런던시와 식품위원회는 영국운하공사(British Waterways)와 협력해 쌈지농장 부지를 다량 확보함.
 - 2012년까지 2012개 쌈지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현실화되고 있음.
- 런던시 및 런던식품위원회와 협력을 약속한 운하공사는 쌈지농장 담당조직인 'Capital Growth' 전문가들과 함께 운하 인근 수변공간과 노후화된 보트를 대상으로 수상 및 수변 농장 부지를 물색함.

- 지역사회단체와 주민, 지자체로 구성된 Growing Concerns 팀이 농장 개발과 관리를 맡아 지역순환 퇴비·친환경 부식토 생산시설과 식용작물 재배지로 농장을 만들어갈 계획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038)

(www.britishwaterways.co.uk/london)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의 식품위원회가 영국 운하공사 등의 조직과 협력해 운하 주변을 친환경 농장 부지로 이용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돕는 좋은 정책 사례임.
- 수변공간은 주로 자전거 도로, 산책로, 운동공간으로 일부 이용되거나 자연식생으로 덮인 방치된 공간으로 유지되어 왔음.
- 이 공간을 활용해 작물을 생산하고, 이를 위한 생산시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함.
- 서울시는 팔당댐 상류지역에 친환경 농장 13개를 2009년 4월부터 개장해 매년 약 1만여 명이 참여할 수 있게 함.
- 참여 시민 한 구좌당 임차료 5만원 중 50%인 2만 5천원을 지원하고, 영농농기구를 저가로 공급해 유기농업 방식의 경작을 돕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사 경험이 부족한 시민에게 친환경 영농기술을 지도함.
- 지역을 확대해 서울시 한강지천 즉 양재천변, 중랑천변, 홍재천변 등에 이러한 친환경 쌈지농장 부지를 확보하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쌈지농장 이용을 도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22. 2012년 올림픽 개최 이후의‘올림픽 파크’재활용 계획 (런던)

- 런던시는 2012년 올림픽 개최 이후 올림픽 파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올림픽 파크에 인접한 5개 자치구와 연계해 주변의 아름다운 공원과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교육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 시설이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임.
- 수준 높은 주택 1만 호를 올림픽 파크 지역에 건설할 계획임.
- 새로운 초등학교 3곳, 중학교 1곳, 올림픽 스타디움에는 스포츠 아카데미를 조성할 예정임.
- 올림픽 지역인 스트라포드 시티(Straford City)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방송 분야의 비즈니스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도 발표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0897)

23. 이웃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 정원 (파리)

○ 파리市 15구에 총면적 350m²의 새로운 공동 정원이 생김.

- 지하 도로와 주차장 위에 있는 이 공간은 작은 과실나무 정도를 심는 것만 가능함. 파리市 녹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원을 가꾸는 비용을 파리市 공공주택협회(OPAC)에서 제공함.
- 대지와 정원 용수는 파리시가 부담하지만 재정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파리市 공공주택협회가 담당함.
- 市는 정원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정원을 가꾸면서 세대 간 공감하고, 이웃과 우의도 돈독해지는 등 새로운 공용 녹지공간에 거는 기대가 큼.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65308&portlet_id=21961)

24. 공영 부동산 사무소 설립 (파리)

○ 파리市는 2009년 주택 공급 정책으로 공영 부동산 사무소 설립을 추진 중임.

- 여기에 공영주택 임차인에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 지원책을 마련하고, 2008년 6104개에 이어 2009년에는 6600개를 공영 주택 우선 건설에 추가함.
- 100% 市의 재정 부담으로 파리 13구의 330개 건물의 에너지 진단을 하기로 함.
 - 2009년 들어 새로운 정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주택 지원이 대표적임.
- 현재 주택의 에너지 개선에 대해 3만 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함. 또한 주택 임대 보조금, 관리비 보조 등의 주거 지원금이 2.95% 상승됨.
- 15년 이상 되는 집을 매매할 때 전기설비 진단을 권고하는 정책을 실시함.
 - 이 진단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 때 요구할 수 있음.

(www.paris.fr/portail/accueil/Portal.lut?page_id=1&document_type_id=2&document_id=63818&portlet_id=21961)

25. 도유 시설 10개년 유지 갱신 계획 수립 (도쿄)

- 도쿄都의 도유 시설은 1970년대나 1990년대 지어진 것으로, 건물의 경년 열화가 진행되고 설비 갱신 시기를 맞음. 도쿄都는 2008년 2월에 수립된 '대규모 시설 등의 개축·개수에 관한 실시 방침'에 근거하여 '도유 시설 10개년 유지 갱신 계획'을 수립함.
-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 관점을 기본으로 하는 시설 유지 갱신을 실시함.
 - 첫째, 안전·안심의 확보와 환경부하의 저감을 위해 추진함. 시설의 내진화,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배리어 프리 등)을 도입함.
 - 둘째, 장래의 예상 비용 삭감과 편리성 확보를 위해 추진함. 건물용도 변경 등에 따른 설비 시스템 변경과 증설을 쉽게 하고,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과 갱신·점검·보수를 쉽게 함.
 - 셋째, 도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임. 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구청사 등

을 개수 공사하고,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서비스 시설을 개선하며, 도시 재생 사업이나 마을 조성 사업에 도유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이며, 사업비는 약 8300억 엔(약 1조 245억 원)으로 예상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09/02/70j2a200.htm)